

개방 확대를 통한 중·미 무역분쟁 대응

2018년 제2회 한중경제포럼

1. 주 제: 개방 확대를 통한 중·미 무역분쟁 대응
2. 일 시: 2018. 5. 31(목) 16:00~18:00
3. 발표자: 북경대학 국가발전연구원 위마오제(余淼杰) 부원장

1. 중미 무역 게임: 분쟁 혹은 협력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무역분쟁 지속 확대

- 2017년 1월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압박
-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조사 시작
- 미국은 주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고관세를 부과
- 중국 10대 산업 수출품에 대해서는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계획(2018.3.23)
 -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500억 달러 규모)에 25%의 고관세 부과 예정(2018.4.23)
 - 대상 품목으로 TV(39억 달러), 자동차(15억 달러), 복사기 및 부품(14억 달러), 알루미늄 제품(11억 달러)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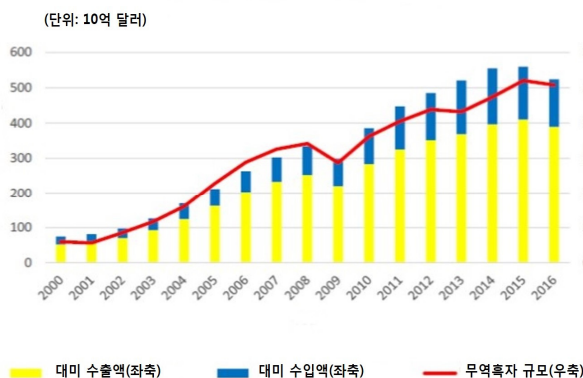
□ 트럼프 정부가 무역분쟁을 확대시키는 이유

- 미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 300만 개가 감소함.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지속되는 등 중미 양국의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중국이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규정함.

□ 중미 무역 불균형과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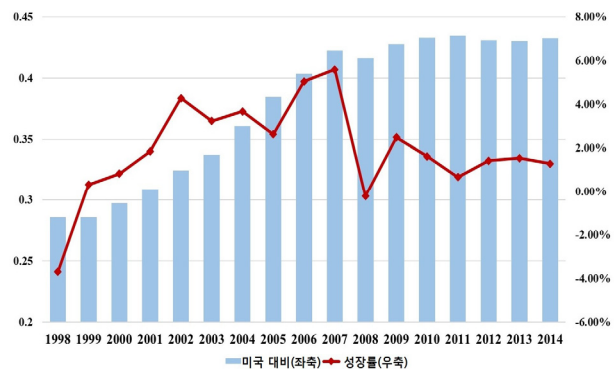
- 중미 양국은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나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 미국의 대중 무역 규모는 2001년 말 980억 달러에서 2016년 5,240억 달러로 연평균 14% 가량 증가했으나 대중 무역 적자 규모도 증가 추세
 -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상품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 중임.
 -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중국에서 가공·생산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함. 이에 따라 중국은 무역흑자 규모는 크지만 상품부가가치는 매우 낮은 편임.
- 많은 미국 기업은 대중국 고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임.(Rodney, Mayda, Yu and Yu, 2018)
 - 영국, 미국의 다수 경제학자들도 대중국 고관세 부과 반대(Spence, Stiglitz)
-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상품 수출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데, 이들 상품은 단가와 부가가치가 높은 편임.
- 중국은 대미 상품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는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함. 그러나 서비스 무역 분야 적자는 중미 무역 불균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그림 1. 중미간 무역액 추이(2000~2016년)



자료: 余森杰(2018).

그림 2. 중국의 총요소생산성(TFP)과 성장률
(미국(TFP)=1 기준)



자료: Feenstra, Robert C., Robert Inklaar and Marcel P. Timmer (2015), "The Next Generation of the Penn World Table" American Economic Review, 105(10), 3150-3182.

□ 중국은 제1의 대미 서비스 무역적자 대상국

- 2016년 양국 간 서비스 무역규모는 1,181억 3,000만 달러이며, 이는 중국 서비스 무역액의 18%에 해당

- 2016년 중국의 대미 서비스 무역 적자 규모는 557억 달러로 중국 서비스 무역 적자액의 23.1%를 차지
- 관광(유학, 의료 포함)분야에서 적자규모가 가장 큰 편이며, 중미 서비스 무역 적자액의 50% 이상 차지
- 2016년 중국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1만 3,000 달러에 달하였으며, 당해 관광지출은 352억 2,000만 달러로 미국은 하루 약 1억 달러의 수입 창출
- (유학)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은 35만 3,000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34%에 해당하며, 유학생 1인당 평균 약 4만 5,000달러를 소비하여 미국은 약 159억 달러의 수입 창출
- 그밖에도 운송 부문에서 중국은 5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대미 서비스무역 적자의 약 10%에 해당

□ 중미 무역의 게임 과정

- 중국은 자유무역으로 공존공영을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임.
- 2017년 양국은 100일 계획을 통해 소고기, 육가공품, 바이오 기술, 천연가스 등 10개 항목에서 조기 수확(early harvest)을 거두었으며, 11월 트럼프 방중 기간 양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정을 체결함.
- 2018년 3~4월,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할 것으로 언급
- 중국 상무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선언(以战止战)”을 발표함과 동시에 동등한 수준의 규모와 강도로 대응할 것임을 밝힘.
- 중국은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각각 15%와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2018.3.23)
- 중국은 추가로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화학공업제품, 항공기 등 품목에 대해 500억 달러 규모의 25% 고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함.(2018.4.4)
- 특히, 항공기(162억 달러), 대두(124억 달러), 자동차(100억 달러) 등 3개 분야를 겨냥함.
- 5월에 진행된 중미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대미 수입 확대, 미국은 중국 수출품에 대한 제재 없기로 합의

표 1. 중·미 100일 계획 조기수확 성과

분야	조기수확 성과
소고기	(중국) 2017년 7월 16일 이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육가공품	(미국) 중국산 육가공품에 대한 수입 허가
바이오 기술	(중국) 안전심사 평가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 바이오 제품 평가
천연가스	(중국) 모든 형태의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계약 협상 추진 가능
신용평가 서비스	(중국) 외자 금융업체의 신용평가 서비스 허가
국제결제	(중미) 양국은 국제결제기구 감독관리 업무에 대해 합의
전자결제	(중국) 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의 중국 시장 진입 허용
은행업	(미국) 중국계 은행과 외자은행을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합의
채권	(중국) 미국의 2개 금융기관에 대해 중국 내 채권발행과 인수에 대한 허가증 발급
투자회의	(미국) 중국의 '알데일로' 정상회의 참여 및 2017년 6월 개최되는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의에 중국 참여 환영

□ 무역분쟁과 무역전쟁

- 현재 양국의 실질 무역분쟁 규모는 3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함.
- 그러나 규모가 1,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면 이는 국부적인 '무역전쟁'을 의미하며, 과거 '미일 무역전쟁' 규모에 상당함.
 - 스톨퍼-사무엘슨(Stella Stolper - Paul A. Samuelson)에 따르면 25%의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250억 달러 규모이며, 이해당사자에게 주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남.
- 양국은 협상 결과 무역 협력을 통해 상호간 무역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이는 중미 무역 분쟁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진 않음.

2. 중미 '무역전쟁'의 3가지 시나리오

□ 중미 무역구조 및 분쟁내용

- 중미 양국은 세계 무역 상품의 40%를 생산하고 있으며, 양국간 무역 규모는 전 세계 무역액의 20%를 상회
 - 중미 무역의 핵심은 방직품, 컴퓨터, 전자제품, 기타 교통수단임.
- 중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은 기계 및 전자제품이며, 2016년 대미 수출액은 중국 전체 수출액의 44%에 해당하는 1,730억 달러를 기록
- 방직품은 중국이 대미 수출 제2대 상품으로 2016년 대미 수출액은 약 420억 달러 기록(대미 수출 총량의 11%)
- 그러나 중미 양국 무역의 핵심 쟁점분야는 '철강업'임.
 - 미국정부는 중국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업종의 보호 및 1억 톤 규모의 덤핑 판매로 인해 전 세계 시장구조의 왜곡현상 발생을 야기하였다고 지적함.
 - 2011~2015년, 미국은 중국 기업에 반덤핑 29건과 보조금 25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중 철강업 분야의 반덤핑 11건과 보조금 10건이 포함됨.

표 2. 중미 무역 주력 품목 현황(1993~2016년, 단위: 10억 달러)

연도	철강		방직품		기계 및 전자제품	
	대미 수출	대미 수입	대미 수출	대미 수입	대미 수출	대미 수입
1993	-	-	3.3	0.2	2.9	3.8
1994	-	-	3.2	0.9	4.6	4.5
1995	-	-	3.2	1.4	5.5	5.1
1996	-	-	3.2	1.1	6.5	5.6
1997	-	-	3.6	1.0	8.3	5.4
1998	-	-	3.8	0.4	10.5	6.5
1999	-	-	4.0	0.2	12.5	8.0
2000	-	-	4.6	0.3	16.4	9.2
2001	-	-	4.6	0.3	18.0	11.4
2002	-	-	5.4	0.4	26.2	11.2
2003	-	-	7.2	1.1	39.4	11.4
2004	-	-	9.1	2.3	56.7	15.5
2005	-	-	16.7	2.1	72.8	16.8
2006	-	-	19.9	3.0	92.6	21.4
2007	-	-	22.9	2.4	107.9	23.7
2008	6.92	1.22	23.3	2.6	113.5	26.2
2009	1.51	0.90	24.6	1.7	104.7	22.3
2010	1.63	0.63	31.5	3.1	132.9	28.7
2011	2.58	0.65	35.1	4.2	150.0	29.5
2012	2.88	0.57	36.2	5.0	163.4	29.0
2013	2.75	0.58	39.0	3.8	169.3	38.3
2014	4.02	0.69	41.9	2.5	182.9	38.3
2015	2.85	0.58	44.8	2.0	179.9	35.7
2016	1.71	0.45	42.4	1.3	172.9	31.3

표 3. 중미 무역 흐름(2011년, 단위: %)

업종	$\frac{M'_{USACHN}}{M'_{USA}}$	$\frac{M'_{USACHN}}{E'_{CHN}}$	$\frac{M_{CHN,USA}}{M_{CHN}}$	$\frac{M_{CHN,USA}}{E_{USA}}$
농업	2.339	6.239	21.930	18.068
광산	0.129	4.498	0.707	6.128
식품	7.627	15.169	13.615	7.686
방직	45.607	23.886	6.209	8.401
임업	27.849	26.902	13.077	16.451
제지	14.479	24.581	43.912	15.695
석유	1.672	6.069	6.202	2.081
화학공업	7.772	12.934	11.618	9.589
플라스틱	25.876	25.816	6.769	6.645
광산품	31.789	16.574	13.201	11.601
기초금속	3.528	4.840	3.575	9.961
금속제품	28.235	19.918	11.012	5.251
기계	20.666	20.393	8.856	8.184
컴퓨터	47.063	29.036	5.883	16.523
전자제품	31.176	21.606	6.022	11.608
자동차	5.426	23.469	8.165	5.730
기타 교통수단	7.437	4.265	27.825	5.184
기타	30.020	24.833	15.554	2.760

표 4. 미국과 중국의 GDP 대비 무역비중 및 전 세계 산출량 대비 GDP 비중(%)

업종	M_i^j/Y_i^j	E_i^j/Y_i^j	Y_i^j/Y_w^j	M_i^j/Y_i^j	E_i^j/Y_i^j	Y_i^j/Y_w^j
	미국			중국		
농업	7.507	14.482	8.015	3.863	0.911	25.276
광산	52.900	6.429	9.946	29.811	0.809	18.677
방직	141.964	25.867	3.247	2.690	20.834	44.789
임업	15.485	7.255	8.367	1.790	3.144	42.658
제지	4.492	12.026	26.300	8.668	5.336	13.038
석유	11.801	15.530	20.558	7.243	4.520	14.847
화학공업	23.396	24.256	14.978	13.791	9.309	22.665
플라스틱	25.037	13.286	10.388	4.024	7.742	33.674
광신품	17.207	9.697	5.667	1.055	4.086	45.785
기초금속	33.988	12.720	7.227	6.772	4.734	37.825
금속제품	13.789	10.778	14.385	3.742	14.232	19.768
기계	43.869	36.638	9.112	9.651	12.672	31.967
컴퓨터	86.949	35.134	10.024	33.549	47.917	29.483
전자제품	68.910	26.279	5.836	6.951	13.644	42.571
자동차	42.417	21.103	12.003	7.934	5.255	22.402
기타 교통수단	14.379	37.821	20.081	8.040	28.604	17.600

□ 시나리오① 미국이 중국에 일방 제재(고관세 부과)

- 미국의 상품 생산량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할 것
 - 컴퓨터, 방직품, 전자제품의 생산이 대폭 증가 될 것임.(관세부과 전 미국은 몇 개 분야에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했으며,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
 - 미국의 석유, 방직품, 목제품, 컴퓨터 등 제품 수입량은 1/4 가량 감소할 것임.
- 반면 중국은 11개 분야에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나 미국의 관세부과가 중국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약 5% 미만으로 크지 않을 것임.
- 관세 부과로 인해 중국의 대미수출은 평균 75% 감소 예상

표 5.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무역 및 산출변화 값(%)

업종	Y_{USA}^j	M_{USA}^j	Y_{CHN}^j	E_{CHN}^j	M_{USACHN}^j	M_{CHNUSA}^j
농업	2.374	-8.021	0.831	-1.564	-96.804	8.571
광산	12.308	-4.107	2.222	3.846	-99.345	14.635
식품	-3.424	-10.181	1.318	-8.444	-64.289	3.313
방직	24.846	-28.457	-6.515	-20.842	-93.756	1.243
임업	5.460	-28.303	-0.681	-23.416	-98.633	7.544
제지	5.479	-19.563	-2.841	-21.732	-99.801	11.245
석유	14.472	-45.055	2.451	17.272	-100.000	61.402
화학공업	1.848	-7.437	-2.391	-8.301	-68.884	0.205
플라스틱 비닐	4.943	-7.898	-3.312	-10.453	-43.691	-1.942
광석	6.553	-14.379	1.035	-8.349	-56.947	2.991
기초 금속	6.810	3.419	-0.870	-1.934	-68.573	0.246
금속제품	7.645	-23.960	-3.089	-16.465	-92.298	3.486
기계	-3.050	-14.777	-0.260	-7.842	-45.430	1.182
컴퓨터	31.836	-26.690	-14.669	-25.113	-94.278	0.466
전자제품	22.238	-18.176	-2.428	-17.908	-99.014	6.079
자동차	-0.280	-3.116	0.554	-10.599	-49.731	0.996
기타 교통수단	3.578	3.552	1.027	-0.230	-9.508	1.665
기타	-0.066	-25.852	-4.829	-18.271	-78.119	2.589

- 한편, 고관세 부과는 미국 국내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지면서 사회후생에서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마찬가지로 중국의 사회후생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 정도는 미국보다 작을 것임.

표 6.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실질 임금 변화(%)

순위	국가	$w_n/P_n, \%$	순위	국가	$w_n/P_n, \%$
1	싱가포르	2.577	53	프랑스	-0.348
2	룩셈부르크	2.171	54	코스타리카	-0.365
3	아일랜드	2.040	55	캄보디아	-0.386
4	브루나이	1.896	56	루마니아	-0.510
5	아이슬란드	1.422	57	튀니지	-0.567
6	말레이시아	1.403	58	인도	-0.650
7	스위스	1.194	59	미국	-0.661
8	노르웨이	1.188	60	포르투갈	-0.663
9	사우디아라비아	1.121	61	그리스	-0.990
10	네덜란드	1.081	62	터키	-1.119
38	중국	-0.042			

-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중국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이유
 - 중미 무역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으며, 미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 확대를 추진할 것임.
 - 미국이 중국의 대미 투자 제재에 나선다면, 약 26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잃게 될 것임.
 - 미국이 중국인 관광 규제에 나선다면, 약 15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잃게 될 것임.

□ 시나리오② 중국과 미국이 상호 고관세 부과

- 미국의 총산출과 총 수입, 대중 수입은 시나리오①과 유사한 결과를 보일 것임.
 - 컴퓨터, 방직품, 전자제품 등 3개 분야에 미국의 총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
- 중국의 총산출과 총 수출 변화도 시나리오①과 유사하며, 방직품과 컴퓨터 산업 총수출은 현저히 감소할 것
- 상호 부과한 징벌적 관세로 인해 양국 간 수입량은 대폭 감소 예상
-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임.
 - 중국의 수출 일부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에 일부 제조업의 신규고용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대미 수입 감소로 인해 중국 국내 물가 상승이 예상되며, 중국의 실질 임금도 감소하여 단기적 진통은 피하기 어려울 것임.

표 7. 중국과 미국이 상호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실질 임금 변화

순위	국가	실질 임금, %	순위	국가	실질 임금, %
1	캄보디아	0.22	53	캐나다	-0.01
2	코스타리카	0.11	54	남아프리카 공화국	-0.01
3	싱가포르	0.09	55	한국	-0.02
4	베트남	0.08	56	사우디아라비아	-0.02
5	멕시코	0.06	57	호주	-0.02
6	이스라엘	0.05	58	브루나이	-0.03
7	사이프러스	0.04	59	칠레	-0.03
8	이탈리아	0.04	60	홍콩	-0.04
9	타이완	0.03	61	미국	-0.32
10	에스토니아	0.03	62	중국	-0.37

□ 시나리오③ 미국이 고관세 부과, 중국도 보복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개방 확대 추진

-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동일한 수준으로 보복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기타 국가에 대한 개방 확대를 추진하여 중국의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특히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을 EU, 일본, 한국 등 국가의 수입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중국에 큰 손실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임.

표 8. 미국이 무역전쟁 개시하고 중국은 보복조치와 개방 확대 추진할 경우 실질 임금 변화(%)

순위	국가	$w_n/P_n, \%$	순위	국가	$w_n/P_n, \%$
1	싱가포르	2.633	53	프랑스	-0.352
2	룩셈부르크	2.168	54	코스타리카	-0.374
3	아일랜드	2.040	55	캄보디아	-0.403
4	브루나이	1.927	56	루마니아	-0.511
5	말레이시아	1.467	57	튀니지	-0.572
6	아이슬란드	1.419	58	인도	-0.648
7	스위스	1.194	59	포르투갈	-0.666
8	노르웨이	1.175	60	미국	-0.753
9	사우디아라비아	1.132	61	그리스	-1.000
10	네덜란드	1.073	62	터키	-1.121
37	중국	0.080			

3.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이익

□ 개방 확대와 수입증가에 따른 5대 이익

- 수입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품목이 증가
 - 이는 중국 중산층 확대 이후의 소비구조 변화에 부합됨.
 - 2016년 중국 GDP에서 소비비중이 45%, GDP 성장에 대한 소비 기여도는 58%를 기록함. 현재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은 소비 위주의 내수임.
 -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8,800달러이고, 특히 3대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톈진)의 1인당 소득은 1만 달러를 상회하는데 이는 고소득 국가의 수준에 해당됨.
 - 현재 중국은 전체 인구의 약 20%가 중산층에 해당하며, 그중 도시 인구 비중이 높음.
 - EU, 미국,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다양성, 높은 품질, 개성화된 소비품 수입확대를 통해 중산층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음.
- 국내 주민의 소비구조에서 볼 때, 수입 확대는 사회후생을 증가
 - 수입 소비재가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이 가능하고, 기업간 경쟁을 통해 소비품 가격이 인하되면 국민의 실제 소득을 향상시키는 후생 효과로 볼 수 있음.
- 수입증가는 기업의 실적 제고와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기여
 - 수입품은 최종소비품과 중간재와 자본재를 모두 포함하는데 기업은 수입 자본재 중에서 선진 생산기술을 습득할 수 있음.
- 서비스 무역 분야 수입 확대

- 더 많은 해외 유학 및 의료관광 등 관광 수입을 확대함.

5) 금융 서비스업 개방 확대

- 외자은행의 진입 장벽과 지분비율 제한을 완화하고, 외자은행·보험·컨설팅 분야의 중국시장 투자를 장려함.

□ 중국의 개방 확대 방안

- 2018년 4월 '보아오(博鳌) 포럼'에서 제시된 4대 조치
 - (시장진입기준 대폭 완화) 금융업은 2017년 말에 은행, 증권, 보험업의 외자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함. 동시에 일부 제조업의 외자 참여 지분비율 제한 완화, 그중 자동차 산업의 외자제한을 완화
 - (투자환경 개선) 국제 무역 규범 적용을 통한 투명성 제고, 소유권 보호 강화, 법에 의한 업무처리, 경쟁 장려, 독점행위를 억제함. 2018년 상반기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 진입 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함.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국가지식재산권 개편을 통해 법집행 완비 및 강화, 위법 시 처벌 강화, 재중 외자기업의 합법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
 - (수입 규모 확대) 중국은 무역흑자를 목표로 하지 않고, 수입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균형을 추진함. 2018년에 자동차 수입관세 대폭 인하, 일부 제품의 수입관세 인하 조정,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속도를 가속화함. 선진국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첨단기술 제품 무역에 대한 인위적 규제 취소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품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 희망함.
- (2018년 5월 국무원 결정, 7월 시행) 외국기업의 중국내 시장진입기준 완화
 -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제조 분야의 규제완화를 명시하며 적격 역외투자자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거래자들이 원유, 철광석 등 선물 거래에 참여 가능하도록 유도함.
 - 외자 금융기구의 지방정부 채권 매입을 지지(국제 투자 편리화 수준 상향 제고)하고, 2018년 7월 1일까지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발표하며, 10억 달러 이하의 외자기업 설립 및 갱신 업무 심사 및 관리를 성(省)급 정부로 이관함.
 - 외국인 인재의 재중 근무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고, 중국 내 등록 기업이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 인재 채용시 2일 이내 비자 발급이 가능토록 함.
- 외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 권리 침해, 짝퉁, 업무상 비밀, 상표 베끼기 등 행위를 엄단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률 보상을 대폭 상향 조정함.
- 국가급 산업단지를 통한 외자 유치 효과를 강화하고, 외자 활용도 향상 선도
- 신용 대출, 용지, 사회보험 등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기업의 운영 원가 절감 노력
 - 중서부 지역과 현대 농업, 생태건설,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 업종으로 외자 투자가 확대되도록 유도함.
- 지속적 관세 인하
 - 의류, 신발, 모자 등의 수입관세를 평균 15.9%에서 7.1%로 인하하고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에 적용되는 수입관세를 평균 20.5%에서 8%로 인하함.
 - 양식류, 어획물 등 수산물 및 광천수 등 가공 식품 수입 관세를 평균 15.2%에서 6.9%로 인하하고 세탁 용품 및 스킨케어, 헤어케어 등 화장품 및 부분 의료 보건류 상품 수입관세를 평균 8.4%에서 2.9%로 인하함.

□ 소결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미 간 무역분쟁이 격화되었으며, 최근 다시 무역협력으로 전환되었으나 정책변화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해진 상황임.
- 중미 간 '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발발할 경우 미국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중국은 개방 확대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무역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일대일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협력을 통한 윈윈'이 가능한 국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질의응답(Q&A)

Q 1. 최근 미국이 중국의 일부 상품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미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반면 중국은 계속하여 시장개방 확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만약 중국이 계속하여 개방 기조를 유지한다면 추가개방이 가능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예상하는가?

A 1. 미국이 중국에 대해 25%의 고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동일 수준의 관세 부과를 통해 대응 할 수 있음. 그밖의 국가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할 것임. 중국의 개방 확대조치와 관련하여 시진핑 국가주석은 시장진입기준 대폭 완화, 투자환경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수입규모 확대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함. 또한 일대일로와 RCEP을 적극 추진하여 일대일로 주변국가와 10+6(아세안,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국가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와 투자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임.

Q 2. 중미 무역분쟁은 중국이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경쟁상대'로 되었고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산업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촉발되었다고 지적하셨음. 「중국제조 2025」가 국가 보조금에 의한 산업발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음. 중국이 G2로 성장한 상황에서 보조금에 의한 산업발전정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A 2.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중미 무역분쟁 발생의 주요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바 있음. 근본적 원인은 바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도약하느냐 여부임.

보조금 지원 중국 뿐 만 아니라 미국도 많이 실시해 왔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현시점에서 중국의 산업발전정책에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됨. 그리고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유, 민간 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중국정부는 여러부분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 미국에 투자하거나 M&A를 추진 할 때 미국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민간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규제가 심함. 예를 들어 중국의 삼일중공업(三一重工)의 미국기업에 대한 M&A 승인을 거부했고, 또 하나의 민간기업이 미국 돼지고기 업체에 대한 M&A를 추진했으나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음. 즉, 개인적으로 볼 때 국가안보는 미국정부가 중국기업의 M&A를 규제하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함.

그리고 ‘중국제조 2025’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은 다른 이유로 중국에 대해 규제를 들이댈 것임. 그리고 미국 역시 수출상품, 특히 농산품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무역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가능함. 예를 들어 오바마 정부 시기에는 중국의 대미 수출 규제보다 미국의 수출을 적극 확대시켰음. 결과적으로 양국 무역규모 확대는 모두에게 윈윈 효과를 가져다주었다고 판단됨. 사실 중국도 과도한 무역흑자 기조 유지를 원치 않음. 외환보유고가 부족할 경우 무역흑자가 필요하지만 일정 규모의 외환을 보유한 상황에서 흑자 규모가 과도하게 클 경우 이에 따른 가치 유지·증가 등의 압박도 큼. 따라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수출 확대와 중국의 수입 확대를 통해 상호 간의 무역규모를 확장하는 것임.

Q 3.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과거 반덤핑, 상계관세 등 불공정 무역과 관련되어 압박하였으나 최근에는 안전문제, 지재권문제, 중국의 부상 등과 관련됨. 이는 중국이나 미국 통상정책의 근본적인 전략 변화를 의미함. 즉, 미국이 단순히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역갈등을 일으킨 것은 아닐 것임. 또한 이를 통해 무역적자를 감소시키기도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대폭 절상시키는 것으로 보임. 미국이 중국에 대해 환율절상 압박을 한다면 중국은 시장개방 확대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 만약 미국이 환율조작이나 환율 불균형 등 이유로 과거 1980년대 일본에 대한 플라자 합의처럼 중국에 대해 환율 압박을 가할 경우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가?

A 3. 개인적으로 양국사이의 무역갈등은 일상화 될 것으로 예상됨. 즉, 중미 무역전쟁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양국은 수시로 반덤핑, 반보조금 등과 관련된 갈등을 겪을 것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집정(향후 2년, 혹은 6년) 기간에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임.

환율 문제는 미국이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을 요구할 경우 1980년대 미·일 사이에 겪었던 상황과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임. 사실 당시 미·일 무역전쟁 결과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승리한 것 같지만 실상은 패배와 다름없음. 환율문제는 플라자 협의를 통해 일본의 엔화가 급격히 절상하면서 미국이 이긴 것임.

장기적으로 위안화는 절상되었으나 단기간에 급속한 절상은 중국에 악영향을 줄 것임. 따라서 중국은 위안화 환율의 점진적인 절상을 추진하고 있음. 통화 환율수준은 국가의 실물경제 발전수준과 밀접하게 관계됨. 즉, 중국기업의 수익성이 높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미국기업을 초과했을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절상하게 될 것임. 하지만 단기 절상은 중국 기업이 미처 적응하지 못해 어려워지게 될 것임. 따라서 중국정부도 단기 내 급격한 절상은 반대하고 있음.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해 45% 수준의 환율 절상 요구를 한다면 중국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했을 때와 거의 유사한 결과로 나타날 것임. 앞서 설명한 3가지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결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임. 미국이 환율절상 요구는 중국의 모든 산업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3가지 결과는 모두 성립됨. 위안화가 45%가량 절상될 경우 중국은 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표면적인 조치로 볼 수 있음. 근본적인 대응방법은 위안화 지역화와 국제화 추진임. 위안화 국제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필요함. 미국 달러가 세계 패권지위를 차지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위안화 지역화를 추진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일대일로 관련 국가, 10+1 아세안 국가에서의 위안화 지역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또한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미국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영국이나 독일의 국채 보유를 늘일 수도 있음.